

北音系韻書의 聲母 異同考

-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普通話를 중심으로 -

安 在 哲*

〈 次 列 〉

- | | |
|-------------|-----------------|
| 1. 序論 | 라. 舌面塞擦·擦音 |
| 2. 本論 | 마. 舌尖前塞擦·擦音 |
| 가. 雙唇塞·鼻音 | 바. 舌尖後塞擦·擦音 |
| 나. 脣齒擦音 | 사.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
| 다. 舌尖塞·鼻·邊音 | 3. 結論 |

1. 序論

〈中原音韻〉은 北音系韻書의 嚆矢로서, 〈切韻〉이나 〈廣韻〉으로 대표되는 切韻系韻書에 못지 않게 큰 價値를 지니고 있다. 또한 〈韻略易通〉과 〈韻略匯通〉도 〈中原音韻〉을 잇는 北音系韻書의 一種으로, 비록 〈中原音韻〉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輕視되어서는 안 되는 韻書이므로, 위의 세 韻書와 普通話를 比較해 보는 것은 北音系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존에 研究된

中古 36字母의 音價

(/p-/、/p'-/、/b-/、/m-/、/f-/(/pf-/)、/f'-/(/pf'-/)、/v-/(/bv'-/)、/ŋ-/、/t-/、/t'-/、/d-/、/n-/、/l-/、/k-/、/k'-/、/g'-/、/ŋ-/、/x-/(/h-/)、/ʎ-/(/ʎ'-/)、/ʔ-/、/ʎ-/(/j-/)、/ø-/、/t-/、/t'-/、/d'-/、/ts-/、/ts'-/、/dz'-/、/s-/、/z-/、/ʃ-/、/ʃ'-/、/ɕ-/、/ʃ-/、/ʒ-/、/tɕ-/、/tɕ'-/、/ɕ'-/、/ɲ-/、/ɕ-/、/z-/)¹⁾

* 濟州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副教授

1) 董同龢氏가 〈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140-154쪽)에서, (幫

《中原音韻》 聲母의 音價

⟨/p-/ /p'-/ /m-/ /f-/ /v-/ /t-/ /t'-/ /n-/ /l-/ /ts-/ /ts'-/ /s-/ /tʃ-/ /tʃ'-/ /ʃ-/ /ʒ-/ /k-/ /k'-/ (/ʁ-/), /x-/ /o-/⟩²⁾

《韻略易通》 聲母의 音價

ʳ/p-/ /p'-/ /m-/ /f-/ /v-/ /t-/ /t'-/ /n-/ /l-/ /ts-/ /ts'-/ /s-/ /tʃ-/ /tʃ'-/ /ʃ-/ /ʒ-/ /k-/ /k'-/ /x-/ /o-/₁⟩³⁾

普通話 聲母의 音價

/p-/ /p'-/ /m-/ /f-/ /t-/ /t'-/ /n-/ /l-/ /ts-/ /ts'-/ /s-/ /ts-/ /tʃ'-/ʒ /ʃ-/ /z-/ /tʃ-/ /tʃ'-/ /ʃ-/ /k-/ /k'-/ /x-/ /o-/⁴⁾

등과 中古音과 《中原音韻》 20聲母의 關係표⁵⁾, 中古音과 《韻略易通》의 聲母 關係表⁶⁾, 中古音과 普通話의 聲母 關係表⁷⁾, 등을 比較하여, 《中原音韻》에서 普通話까지의 變化를 살펴, 그 異同을 밝히고자 한다.

·滂·並·明·非·敷·奉·微·端·透·定·泥·娘·來·見·溪·群·疑·曉·匣·影·云·以·知·徹·澄·精·清·從·心·邪·莊·初·崇·生·俟·章·昌·船·日·書·禪)母의 순으로 推定한 것을 따른다.

2) 董同龢氏,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59쪽

3) 董同龢氏가 《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75쪽)에서 「冰·破·梅·風·無·東·天·暖·來·早·從·雪·枝·春·上·人·見·開·向·一」母의 순으로, 推定한 것을 參照하고, 《韻略易通》은 《韻略易通》과 동일하므로 같이 쓰기로 한다.

4)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20쪽

5) 陳新雄氏가 《中原音韻概要》(學海出版社, 臺北, 民國 72年, 23-25쪽)에서 概略적으로 밝힌 中古音과 《中原音韻》의 關係表를 참조한다.

6) 中古音과 《韻略易通》의 關係表는 拙稿 《韻略易通研究》(서울, 延世大碩士學位論文, 1985, 77쪽 表)를 參照한다. 本人은 表를 作成하면서, 羅常培氏(《中原音韻聲類考》,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集刊 2本 4份, 1932, 437쪽)와 趙蔭棠氏(《中原音韻研究》, 北京, 國立北京大學國學季刊 3권 3호, 1932, 472쪽)가 概略적으로 提示한 것을 紹介하고, 그것을 參照하여 10쪽에 假定을 세웠으며, 그 假定의 眞偽를 한 글자 씩 對照하여 밝힘으로써, 잘못된 곳을 고쳐 77쪽에 새로운 表를 얻은 적이 있다.

7)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211-212쪽 表

2. 本論

아래에서는 普通話 聲母의 發音場所를 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한다.

가. 雙唇塞·鼻音

(1) /p-/

(幫)母字⁸⁾와 (並)母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서는 각각 </p-/>, 「冰」母, [冰]母에 배열되었다⁹⁾.

(가) (幫)母字

(幫)母字는 北音系韻書¹⁰⁾에서 中古의 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나) (並)母 仄聲字

(並)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었는데, (並)母 平聲字는 送氣音으로 읽히는 반면, (並)母 仄聲字는 不送氣音으로 읽힌다.

(2) /p'-/

(滂)母字와 (並)母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p'-/>, 「破」母, [破]母에 배열되었다.

8) 本考에서 이미 사용한 바가 있으며, 이후에도 中古에 사용된 36字母·16攝·韻名과 音價 등은 ()에 넣어서 기술하기로 한다.

9) 本考에서 이미 사용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幫)·</p-/>·「冰」·[冰] 등과 같이 ()·< >·「 」·[] 등을 이용하여, 각각 中古·《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 사용된 字母名이나 音價인 것을 표시하기로 하며, 이후 아무 설명이 없이 ()·< >·「 」·[] 등 만을 사용하면, 그것은 곧 中古·《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 사용된 字母名이나 音價인 것을 표시하기로 한다.

10) 北音系韻書란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普通話를 말하기로 한다.

(가) (滂)母字

(滂)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나) (並)母 平聲字

(並)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었는데, (並)母 仄聲字는 不送氣音으로 읽히는 반면, (並)母 平聲字는 送氣音으로 읽힌다.

(3) /m-/

(明)母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m-/>, 「梅」母, [梅]母에 배열되었다.

(가) (明)母字

(明)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나. 脣齒擦音

(1) /f-/

(非·敷·奉)母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f-/>, 「風」母, [風]母에 배열되었다.

(가) (非·敷·奉)母字

(非)母字는 그대로, (敷)母字는 不送氣音으로, (奉)母字는 清化되어, 각각 </f-/>, 「風」母, [風]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f-/로 읽힌다.

다. 舌尖塞·鼻·邊音

(1) /t-/

(端)母字와 (定)母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다.

(가) (端)母字

(端)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나) (定)母 仄聲字

(定)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었는데, (定)母 平聲字는 送氣音으로 읽히는 반면, (定)母 仄聲字는 不送氣音으로 읽힌다.

(2) /t'-/

(透)母字와 (定)母의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다.

(가) (透)母字

(透)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나) (定)母 平聲字

(定)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었는데, (定)母 仄聲字는 不送氣音으로 읽히는 반면, (定)母 平聲字는 送氣音으로 읽힌다.

(3) /n-/

(泥·娘)母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n-/>, 「暖」母, [暖]母에

배열되었다.

(가) (泥·娘)母字

(泥·娘)母字는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여¹¹⁾, 각각 </n-/>, 「暖」母, [暖]母에 배열되었고, /n-/로 읽힌다.

(4) /l-/

(來)母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l-/>, 「來」母, [來]母에 배열되었다..

(가) (來)母字

(來)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라. 舌面塞擦·擦音

(1) /tɕ-/

(見)母 細音字와 (群)母 開口三等的 仄聲字, (群)母 合口細音의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고, (精)母 細音字와 (從)母 細音의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되었다.

11) 董同龢氏は《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145쪽)에서 (泥·娘)母의 中古音價를 모두 </n-/>으로 하여, (泥)母와 (娘)母를 나누지 않은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1) 唇音의 '博'類와 '方'類 같이, '奴'類는 1·2·4等韻에 많이 보이고, '女'類는 3等韻에 많이 보이는데, 이것의 反切은 결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36字母에서는, 舌音의 1·4等字가 (端·透·定·泥)母에 속하고, 2·3等字는 (知·徹·澄·娘)母에 속하는데, (端·透·定)母와 (知·徹·澄)母는 反切과 合致되지만, (泥)母와 (娘)母는 전혀 상관이 없다.

(3) 守溫字母에 (泥)母는 있으나, (娘)母는 없다. 그래서 36字母의 (娘)母는 舌上音에 次濁聲母가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가) (見)母 細音字

(見)母 洪音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細音字는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나) (群)母 開口三等の 仄聲字

(群)母 開口三等の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다) (群)母 合口細音의 仄聲字

(群)母 合口細音의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라) (精)母 細音字

(精)母 洪音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細音字는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마) (從)母 細音의 仄聲字

(從)母 細音의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溪)母 細音字와 (群)母 開口三等の 平聲字, (群)母 合口細音의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k'-/),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고, (清)母 細音字와 (從)母 細音의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s'-/), 「從」母, [從]母에 배열되었고, (邪)母 細音의 일부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다.

(가) (溪)母 細音字

(溪)母 洪音字는 北音系韻書에서 中古音價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반면 細音字는 각각 </k'-/),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나) (群)母 開口三等の 平聲字

(群)母 開口三等の 平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k'-/),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다) (群)母 合口細音의 平聲字

(群)母 開口三等の 平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k'-/),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라) (清)母 細音字

(清)母字는 각각 </ts'-/), 「從」母, [從]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洪音字는 그대로 /ts'-/로 읽히는 반면, 細音字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마) (從)母 細音의 平聲字

(從)母 細音의 平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ts'-/ >, 「從」母, [從] 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배) (邪)母 細音의 일부 平聲字

(邪)母字는 대체로 각각 </s-/ >, 「雪」母, [雪] 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에서는 대체로 洪音은 /s-/로 읽히고, 細音은 /ç-/로 읽힌다. 그러나 일부는 예외적으로 塞擦音으로 읽히기도 하여, 細音字¹²⁾가 /tɕ'-/로 읽힌다.

(3) /ç-/

(曉·匣)母 細音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x-/ >, 「向」母, [向] 母에 배열되었고, (心)母 細音字, (邪)母 細音의 仄聲字, (邪)母 細音의 일부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s-/ >, 「雪」母, [雪] 母에 배열되었다.

(가) (曉·匣)母의 細音字

(曉·匣)母 洪音字는 각각 </x-/ >, 「向」母, [向] 母에 배열되고, 普通話는 /x-/로 읽히나, 細音字는 각각 </x-/ >, 「向」母, [向] 母에 배열된 반면,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ç-/로 읽힌다.

(나) (心)母 細音字

(心)母 洪音字는 각각 </s-/ >, 「雪」母, [雪] 母에 배열되고, 普通話는 /s-/로 읽히나, 細音字는 각각 </s-/ >, 「雪」母, [雪] 母에 배열된 반면,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ç-/로 읽힌다.

12) 洪音字는 /ts'-/에서 설명한다.

(대) (邪)母 細音의 仄聲字

(邪)母 細音의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淸化되어,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ç-/로 읽힌다.

(라) (邪)母 細音의 일부 平聲字

(邪)母 細音의 平聲字도 仄聲字와 같이, 北音系韻書에서 淸化되어,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口蓋音化되어 /ç-/로 읽힌다. 그러나 일부는 送氣 塞擦音으로 변하여, /tç'/-로 읽히기도 한다.

마. 舌尖前塞擦·擦音

(1) /ts-/

(知·澄)母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 (莊)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 (崇)母의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ʃ-/>, 「枝」母, [枝]母에 배열되었고, (精)母 洪音字, (從)母 洪音의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되었다.

(가) (知)母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

(知)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은 舌尖塞擦音으로 읽히나,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글자는 捲舌音化되어 /tʂ-/로 읽힌다.

(나) (澄)母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

(澄)母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각각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은 舌尖塞擦音으로 읽히고,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글자는 捲舌音化되어 /tʂ-/로 읽힌다.

(ㄷ) (莊)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

(莊)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舌尖塞擦音으로 읽히고,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글자는 捲舌音化되어 /tʂ-/로 읽힌다.

(ㄷ) (崇)母의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

(崇)母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각각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舌尖塞擦音으로 읽히고,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글자는 捲舌音化되어 /tʂ-/나 /ʂ-/로 읽힌다.

(ㄷ) (精)母 洪音字

(精)母 洪音字는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되고, 普通話는 /ts-/로 읽히나, 細音字는 </ts-/>, 「早」母, [早]母에 배열된 반면, 普通話는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힌다.

(ㄷ) (從)母 洪音의 仄聲字

(從)母 洪音의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어,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되고, 普通話는 /ts-/로 읽히나, 細音字는 각각 </ts-/>, 「早」母, [早]母에 배열된 반면, 普通話는 口蓋音化되어 /tɕ

-/로 읽힌다.

(2) /ts'-/

(徹)母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 (初)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ʃ'-/), 「春」母, [春]母에 배열되었고, (淸)母 洪音字, (從)母 洪音의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s'-/), 「從」母, [從]母에 배열되었고, 例外的으로 (邪)母 洪音의 일부 平聲字가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다.

(가) (徹)母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

(徹)母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은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春」母, [春]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舌尖塞擦音으로 읽힌다. 그러나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徹)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히는 것이,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과 같으나, 普通話에서는 捲舌音化되어 /tʃ'-/로 읽힌다.

(나) (初)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

(初)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春」母, [春]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舌尖塞擦音으로 읽힌다. 그러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初)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히는 것이, (深)攝字 그리고 (梗·曾·通)攝 入聲字와 같으나, 普通話에서는 捲舌音化되어 /tʃ'-/로 읽힌다.

(다) (淸)母 洪音字

(淸)母 洪音字는 舌尖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s'-/), 「從」母, [從]母 등에 배열되고, 普通話는 /ts'-/으로 읽힌다.

(㉞) (邪)母 洪音의 일부 平聲字

(邪)母字는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대체로 洪音은 /s-/로 읽히고, 細音은 /ç-/로 읽힌다. 그러나 일부의 平聲字는 예외적으로 塞擦音으로 읽히기도 하여, 細音字는 /tç'-/로 읽히고, 洪音字는 /ts'-/로 읽힌다.

(3) /s-/

(心)母 洪音字, (邪)母 洪音字¹³⁾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고, (生)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ʃ-/>, 「上」母, [上]母에 배열되었고, 모든 (俟)母字에서 由來하였다.

(㉟) (心)母 洪音字

(心)母字는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대체로 洪音은 /s-/로 읽히고, 細音은 /ç-/로 읽힌다.

(㊱) (邪)母 洪音字

(邪)母字는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대체로 洪音은 /s-/로 읽히고, 細音은 /ç-/로 읽힌다. 그러나 일부의 平聲字는 예외적으로 塞擦音으로 읽히기도 하여, 細音字는 /tç'-/로 읽히고, 洪音字는 /ts'-/로 읽힌다.

(㊲) (生)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

(生)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각각 </s-/>, 「雪」母,

13) 洪音 平聲字 중 일부는,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塞擦音의 有氣音으로 변하여 /ts'-/로 읽히기도 한다.

[雪]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s-/로 읽힌다. 그러나 모든 (深)攝字와 (梗·曾·通)攝入聲字를 제외한 (生)母字는 捲舌音化되어 /s-/로 읽힌다.

(ㄹ) (俟)母字

(俟)母字는 /s-/로 읽힌다.

바. 舌尖後塞擦 擦音

(1) /tʂ-/

(知)母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모든 글자, (澄)母의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仄聲字, (莊)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入聲字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崇)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入聲字를 제외한 仄聲字 중 일부글자¹⁴⁾, (章)母字 등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ʂ-/>, 「枝」母, [枝]母에 배열되었다.

(가) (知)母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모든 글자

(知)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ʂ-/>,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은 舌尖塞擦音(/ts-/)으로 읽히나,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知)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ʂ-/로 읽힌다.

(나) (澄)母의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仄聲字

(澄)母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ʂ-/>,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梗)攝入聲二等字의 讀音은 舌尖塞擦音(/ts-/)으로 읽히나,

14) 일부의 글자는 /s-/로 읽히기도 한다.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澄)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_ʂ-/로 읽힌다.

(ㄷ) (莊)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莊)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舌尖塞擦音(/t_ʂ-/)으로 읽히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莊)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_ʂ-/로 읽힌다.

(ㄹ) (崇)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仄聲字 중 일부글자

(崇)母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舌尖塞擦音(/t_ʂ-/)으로 읽히나,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崇)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_ʂ-/나 /ʂ-/로 읽힌다.

(ㄷ) (章)母字

(章)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t_ʂ-/로 읽힌다.

(2) /t_ʂ'-/

(徹)母의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모든 글자, (澄)母 平聲字, (初)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崇)母 平聲字, (昌)母字 등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ʃ'-/>, 「春」母, [春]母에 배열되었고, (船)母의 일부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ʃ-/>, 「上」母, [上]母에 배열되었고, (禪)母의 일부 平

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ʃ-/>, 「春」母, [春] 母에 배열되었다.

(가) (微)母의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모든 글자

(微)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春」母, [春] 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은 舌尖塞擦音(/ts'-/)으로 읽히나, (梗)攝 入聲 二等字의 讀音을 제외한 모든 (微)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ʃ'-/로 읽힌다.

(나) (澄)母 平聲字

(澄)母 平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각각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tʃ'-/>, 「枝」母, [枝] 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tʃ'-/로 읽힌다.

(다) (初)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初)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春」母, [春] 母 등에 배열되었다. 그러나 그 중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普通話에서 舌尖塞擦音(/ts'-/)으로 읽히지만,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初)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ʃ'-/로 읽힌다.

(라) (崇)母 平聲字

(崇)母 平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春」母, [春] 母 등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tʃ'-/로 읽힌다.

(마) (昌)母字

(昌)母字는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春」母, [春]

母 등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tʂ'-/로 읽힌다.

(배) (船)母의 일부 平聲字

(船)母字는 《韻略易通》·《韻略匯通》에서 「上」母, [上]母에 배열되었지만, 《中原音韻》과 普通話에서는 매우 혼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둘 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平聲字는, 《中原音韻》에서 塞擦音(</tʂ'-/>)으로 읽히는 글자는 普通話에서도 捲舌化된 塞擦音(/tʂ'-/>)으로 읽히고, 《中原音韻》에서 擦音(</ʃ-/>)으로 읽히는 글자는, 普通話에서도 捲舌化된 擦音(/ʃ-/>)으로 읽힌다.

(사) (禪)母의 일부 平聲字

(禪)母字는 대체로 舌尖面擦音으로 읽혀, 각각 </ʃ-/>, 「上」母, [上]母 등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ʃ-/로 읽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平聲字가 《中原音韻》에서는 그대로 舌尖面擦音으로 읽혀 </ʃ-/>에 배열되지만, 《韻略易通》·《韻略匯通》과 普通話에서는 塞擦音化되어, 각각 「春」母, [春]母 등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ʃ-/로 읽히기도 한다.

(3) /ʃ-/

(崇)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仄聲字 중 일부의 글자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tʂ'-/>, 「枝」母, [枝]母에 배열되었고, (生)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船)母의 일부 平聲字와 모든 仄聲字, (書)母字, (禪)母의 일부 平聲字와 모든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ʃ-/>, 「上」母, [上]母에 배열되었다.

(가) (崇)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仄聲字 중 일부의 글자

(崇)母 仄聲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舌尖面塞擦音으로 읽혀, 각각 </tʃ-/>, 「枝」母, [枝]母 등에 배열되었는데, 普通話에서는, 그 중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舌尖塞擦音(</ts-/>)으로 읽히나, (深)攝 仄聲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崇)母字는 捲舌音化되어 </ts-/나 </s-/로 읽힌다.

(나) (生)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

(生)母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는, 각각 </s-/>, 「雪」母, [雪]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s-/로 읽힌다. 그러나 (深)攝字와 (梗·曾·通)攝 入聲字를 제외한 (生)母字는 捲舌音化되어 </s-/로 읽힌다.

(다) (船)母의 일부 平聲字와 모든 仄聲字

中古 (船)母字는 《韻略易通》·《韻略匯通》에서 「上」母, [上]母에 배열되었지만, 《中原音韻》과 普通話에서는 매우 혼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둘 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다. 즉 平聲字는 일부의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塞擦音(</tʃ'-/>)으로 읽히며, 그런 글자는 普通話에서 捲舌化되어 塞擦音(</ts'-/>)으로 읽히지만, 나머지 平聲字는 《中原音韻》에서 擦音(</ʃ-/>)으로 읽히며, 그런 글자는 普通話에서 捲舌化되어 擦音(</s-/>)으로 읽힌다. 그러나 仄聲字는 《中原音韻》에서는 舌面塞擦音(</tʃ-/>)이나 舌面擦音(</ʃ-/>)으로 읽히지만, 普通話에서는 모두 捲舌化된 擦音이 되어 </s-/로 읽힌다.

(라) (書)母字

(書)母字는 각각 </ʃ-/>, 「上」母, [上]母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인 </s-/로 읽힌다.

(마) (禪)母의 일부 平聲字와 모든 仄聲字

(禪)母字는 대체로 舌尖面擦音으로 읽혀, 각각 </ʃ-/>, 「上」母, [上]母 등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ʃ-/로 읽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平聲字가 《中原音韻》에서는 그대로 舌尖面擦音으로 읽혀 </ʃ-/>에 배열되지만, 《韻略易通》·《韻略匯通》과 普通話에서는 塞擦音化되어, 각각 「春」母, [春]母 등에 배열되었고, 普通話는 捲舌音化되어 /ʃ-/로 읽히기도 한다.

(4) /z-/

(日)母의 (止)攝 開口字를 제외한 모든 글자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z-/>, 「人」母, [人]母에 배열되었다.

(가) (日)母의 (止)攝 開口字를 제외한 모든 글자

(日)母字는 각각 </z-/>, 「人」母, [人]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그 중 (止)攝 開口字가 零聲母로 변화하였고, (止)攝 開口字를 제외한 모든 글자는 /z-/로 읽힌다.

사. 舌根塞·擦音 및 零聲母

(1) /k-/

(見)母 洪音字, (群)母 合口洪音의 仄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다.

(가) (見)母 洪音字

(見)母字는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그 중 細音字가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히지만, 洪音字는 그대로 /k-/로 읽힌다.

(나) (群)母 合口洪音의 仄聲字

(群)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音化되면서, 그 중 모든 仄聲字는 無氣音으로 변하여 각각 </k-/>, 「見」母, [見]母에 배열되었다. 그러나 普通話에서는 그 중 細音字가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히지만, 洪音字는 그대로 /k-/로 읽힌다.

(2) /k'-/

(溪)母 洪音字와 (群)母 合口洪音의 平聲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k'-/>,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다.

(가) (溪)母 洪音字

(溪)母字는 각각 </k'-/>, 「開」母, [開]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그 중 細音字가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히지만, 洪音字는 그대로 /k'-/로 읽힌다.

(나) (群)母 合口洪音의 平聲字

(群)母字는 北音系韻書에서 清化되면서, 그 중 仄聲字는 無氣音으로 변하였지만, 平聲字는 그대로 有氣音으로 읽힌다. 그러나 普通話에서는 細音字가 口蓋音化되어 /tɕ'-/로 읽히고, 洪音字는 그대로 /k'-/로 읽힌다.

(3) /x-/

(曉·匣)母의 洪音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x-/>, 「向」母, [向]母에 배열되었다.

(가) (曉·匣)母의 洪音字

中古(曉·匣)母字는 각각 </x-/>, 「向」母, [向]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그 중 細音字가 口蓋音化되어 /ç-/로 읽히고, 洪音字는 그대로 /x-/로 읽힌다.

(4) /ø-/

(疑·影·云·以)母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ŋ·ø-/>¹⁵⁾, 「一」母, [一]母에 배열되었고, (日)母의 (止)攝 開口字에서 由來하였으며, 각각 </ʒ-/>, 「人」母, [人]母에 배열되었다.

(가) (疑·影·云·以)母字

(疑·影·云·以)母字는 일반적으로 北音系韻書에서 零聲母가 되어 각각 </ø-/>, 「一」母, [一]母에 배열되고, /ø-/로 읽힌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부의 글자가 《中原音韻》에서 </ŋ-/>에 배열되고, 普通話에서는 /n-/으로 읽히기도 한다.

(나) (日)母 (止)攝 開口字

(日)母字는 각각 </ʒ-/>, 「人」母, [人]母에 배열되었으나, 普通話에서는 나뉘어 (止)攝 開口字를 제외한 모든 (日)母字가 /z-/로 읽히고, (止)攝 開口字가 零聲母로 읽힌다.

3. 結論

上記의 論議를 정리해 보면:

첫째, 《中原音韻》의 聲母를 《韻略易通》·《韻略匯通》 등의 것과 比較해 보면, 거의 변화가 없으나, 董同龢氏는 </ŋ-/>를 設定했다.¹⁶⁾

15) (疑)母의 일부 글자는 《中原音韻》에서 분리된다.

16)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59쪽

그러나 王力氏는, 그것이 단지 〈蕭豪〉韻에서만 보이는 現象으로, 〈中原音韻〉의 작자 周德清氏가 傳統韻書나 自己方言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삭제하여,

〈/p-/、/p'-/、/m-/、/f-/、/v-/、/t-/、/t'-/、/n-/、/l-/、/ts-/、
/ts'-/、/s-/、/tʃ-/、/tʃ'-/、/ʃ-/、/ʒ-/、/tʂ-/、/tʂ'-/、/ʂ-/、/z-/、
/k-/、/k'-/、/x-/、/ø-/〉¹⁷⁾

등으로 推定하여, 〈/ŋ-/〉을 〈/ø-/〉에 包含시켰다.

둘째,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 등이 普通話와 다른 점을 살펴보면,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 등에서 /v-/의 音價를 갖는, 〈韻略易通〉과 〈韻略匯通〉에서 각각 「無」·〔無〕母에 配列된 中古의 (微)母字는, 본래 上古에는 (明)母字의 일부였던 것으로, 그것은 唐宋末初에 이르러 (東)韻三等字를 제외한 모든 合口三等字가 脣齒鼻音으로 發音되었다가, 그 후 北音系統에서는 같은 發音部位의 脣齒音으로 읽혔고, 다시 半元音으로 變하였다가, 最後에는 零聲母로 發音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 등은 脣齒音의 段階에 있는 반면, 普通話는 零聲母의 段階에 이른 것이다.

셋째,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는 보이지 않던 舌面塞擦·擦音(/tʂ-/、/tʂ'-/、/ʂ-/)이, 普通話에서는 舌尖塞擦·擦音과 舌根音의 細音이 口蓋音化되어 생겨났다.

넷째,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는 보이지 않던 捲舌音(/tʂ-/、/tʂ'-/、/ʂ-/、/z-/)이, 普通話에서는 舌尖面塞擦·擦音이 捲舌音化되어 생겨났다. 물론 王力氏는, 〈中原音韻〉에서 이미 捲舌音을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韻略易通〉에서도, 「冰·破·梅·風·無·東·天·暖·來·早·從·雪·枝·春·上·人·見·開·向·一」母의 순으로,

ʳ/p-/、/p'-/、/m-/、/f-/、/v-/、/t-/、/t'-/、/n-/、/l-/、/ts-/、
/ts'-/、/s-/、/ts-/、/ts'-/、/s-/、/z-/、/k-/、/k'-/、/x-/、/o-/」¹⁸⁾

등으로 推定하였는데, 이는 <支思>韻의 (莊·章·日)系字를 </tʃ-/、/tʃ'-/、/ʃ'-/、/ʒ-/> 등에서 分離하여, </ts-/、/ts'-/、/s-/、/z-/>로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細音은 捲舌音과 結合이 容易하지 않은데,¹⁹⁾ 《韻略易通》(《韻略匯通》을 포함)의 「枝」「春」「上」母 등에 細音이 配列된 것으로 미루어, 細音과 結合하기 힘든 舌尖後音(捲舌音)보다는 結合이 容易한 舌尖面音으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捲舌音이 產生되지 않은 것으로 推定한다.

다섯째, 普通話의 舌尖塞擦·擦音(/ts-/、/ts'-/、/s-/)은 결코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서 舌尖塞擦·擦音으로 읽히는 글자와 一致하지 않고,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서 舌尖塞擦·擦音으로 읽히던 글자들 중, 普通話에서 舌面塞擦·擦音으로 읽히는 細音字를 제외한 洪音字와 《中原音韻》·《韻略易通》·《韻略匯通》에서 舌尖面塞擦·擦音으로 읽히던 글자들 중 일부의 글자가 섞이고 있다.

18) 《漢語史稿》, 110쪽

19)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臺北, 民國 70年, 61쪽 (---我們不依多數官話方言訂作 ts-, ts'-, s-, z-, 爲的是他們要與介音或主要元音 i 配, 而捲舌音與 i 拼合是極不自然的.--)

參考文獻

- 蘭茂.《韻略易通》.康熙本.廣文書局.1972
- 陳彭年等.《新校宋本廣韻》.澤存堂藏板本.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 畢拱辰.《韻略匯通》.崇禎本.廣文書局.1972
- 邢宗訓.《中原音韻與其他三種元明韻書之比較研究》.廣文書局.臺北.民國52
- 董同龢.《漢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臺北.民國70
- 方孝岳.《漢語語音史概要》.商務印書館.香港.1979
- 史存直.《漢語語音史綱要》.商務印書館.北京.1981
- 楊耐思.《中原音韻音系》.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1981
- 王力.《中國言語學史》.山西人民出版社.山西.1981
- 王力.《漢語音韻學》.中華書局.北京.1981
- 王力.《漢語史稿》(上·中·下).中華書局.北京.1982
- 王力.《漢語音韻》.中華書局.香港.1984
- 王力.《漢語語音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北京.1985
- 劉德智.《音注中原音韻》.廣文書局.臺北
- 張世祿.《中國音韻學史》(上·下).商務印書館.臺北.民國71 6版
- 趙誠.《中國古代韻書》.中華書局.北京.1980
- 陳新雄.《中原音韻概要》.學海出版社.臺北.1983
- 羅常培.《中原音韻聲類考》.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2本 4份.臺北.1932
- 陸志韋.《釋中原音韻》.燕京學報 第31期.1946
- 陸志韋.《記蘭茂韻略易通》.燕京學報 第32期.1947
- 陸志韋.《記畢拱辰韻略匯通》.燕京學報 第33期.1948
- 鄭錦全.《明清韻書字母的介音與北音顎化源流的探討》.書目季刊.臺北.1980
- 鄭再發.《漢語音韻史的分期問題》.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集刊 36本 下冊.臺北.1965
- 趙蔭棠.《中原音韻研究》.國立北京大學國學季刊 3卷 3號.北京.1932
- 詹秀惠.《韻略易通研究》.淡江學報 11.臺北
- 竺家寧.《近代漢語零聲母的形成》.中語中文學 4輯.서울.1982
- 服部四郎 藤堂明保.《中原音韻の研究》.江南書院.東京.1959
- 金相根.《中語學基礎》.中央大出版部.서울.1993
- 安在哲.《韻略易通研究》.延世大碩士學位論文.서울.1985
- 安在哲.《韻略匯通의 音價 推定》.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서울.1994